



배포 일시	2023. 3. 23.(목) 13:00		
보도 일시	2023. 3. 24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/방송/인터넷은 3월 23일(목) 17:00 이후 보도 가능		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교류협력과	책임자	과 장 남궁재용 (063-733-1230)
		담당자	사무관 김 은 철 (063-733-1231) 주무관 김 지 은 (063-733-1238)

새만금, 1조 2,000억대 투자유치 ‘역대 최대’

- 한국 SK온 · 에코프로머티리얼즈, 중국 글로벌 기업 지이엠(GEM) 연합체
- 올 6월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착공... 1,100명 인력 고용

-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, 제조 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
- 끈질긴 맞춤형 협상 끝 성사... 도로 · 용수 등 기업 애로사항 선제 해결
- 우수한 지원혜택,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 사업확장 가능성 높ی 평가
-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, 새만금 용지 확보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

-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, 한중 합작의 1조 2,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.
-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,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(GEM)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 뉴에너지머티리얼즈(주)를 공동 설립,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.
 - 총 투자금액은 1조 2,100억 원으로,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 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,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(21개사, 1조 1,852억 원)을 초과한 금액이다.
 -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,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.

□ 3월 24일,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규현)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(주)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*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.

*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, 코발트,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

□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(주)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㎡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.

○ 이후, '25년에 1공장, '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,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.

○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.

□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,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.

○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,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,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되었다.

○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(주)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,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.

○ 또한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(철도·공항·항만)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-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(Key Player)로 활약하고 있는 3사(GEM·에코프로머티리얼즈·SK온)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(우량주)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아울러,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,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-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㈜의 장묘 대표는 “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.”라면서, “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(선도) 기업으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,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새만금 국가산단은 용지 확장성, 물류, 기반시설(인프라)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.”라면서, “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유입되고, 유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 - 아울러, “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, 지속적으로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투자 기업 개요, 투자 계획 및 투자 예정지 1부

SK온(주)

< 기업개요 >

- 설립연도 / 대표 : '21.10. / 지동섭, 최재원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26
- 주요사업 : 배터리 제조
-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전문생산 축전지 제조사로 '21.10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
- '22년 배터리 판매량 27.8GWh로 중국시장 제외 시 세계 4위(점유율 12.7%)
- 재계 순위 4위 SK계열 소속기업으로 금융업 제외한 총 197개의 계열사 중 총자산 기준 8위

[주]에코프로머티리얼즈

< 기업개요 >

- 설립연도 / 대표 : '17.04.26. / 김병훈
- 주소 :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
- 주요사업 :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
-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기업으로 에코프로그룹이 2017년 에코프로BM에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
-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를 국내 최초 생산하였으며, '21년부터 전구체의 원료인 니켈, 코발트 금속 정제 및 황산화 공정 구축

GEM Co., Ltd.

< 기업개요 >

- 설립연도 / 대표 : '01.04.26. / Xu Kaihua
- 주소 : Jingmen, Hubei, China
- 주요사업 : 배터리 전구체 생산,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
- 세계시장 3위 배터리 전구체 생산 및 산화코발트 생산기업으로 중국 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
- 사업부는 배터리소재와 재활용사업으로 나뉘며, 매출 비중은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72%, 재활용사업 28% 차지

붙임 2

투자 계획 및 투자 예정지

□ 투자 계획

- 입주예정 합작기업명 :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(주)

분야	금액	위치	면적	고용	공사기간
전구체 제조	12,100억원	산단 6공구	330,000m ² (매입)	1,124명 (신규)	'23.6~'26.12

□ 투자 예정지

